

6월 첫 주말, 서울경마공원에서 이틀간 암말들이 나서는 대상경주가 잇따라 열린다. 4일 토요일에는 '제15회 경기도지사배'(GⅢ, 국산 3세 암말, 레이팅 오픈, 2000m, 총 상금 4억5000만 원)가 열리고, 5일 일요일에는 '제33회 독섬배'(GⅡ, 혼합 3세 이상 암말, 레이팅 오픈, 1400m, 총 상금 6억 원)을 진행한다. '경기도지사배'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마지막 경주다. '독섬배'는 '퀸즈투어'의 두 번째 경주다.

골든파워, '트리플 티아라' 위대한 도전

●4일 '경기도지사배'(GⅢ)

▶골든파워(부경, 3세, 레이팅67, 승률 44.4%, 복승률 44.4%)

최우수 국산 암말을 발굴하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유력한 주인공 후보다. 현재 시리즈의 두 관문, '루나Stakes'(L)와 '코리안오크스'(GⅡ)를 모두 석권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그만큼 견제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경주들에서 승부를 다투었던 참좋은친구와 '라운더스퍼트'와의 재대결이 관심을 모은다.



티아라시리즈 세번째 경주 큰관심 참좋은친구·라운더스퍼트 대항마



라운더스퍼트, 대상경주 3연승 기록 퀸즈투어 두번째 관문 독섬배 도전

▶어디가나(서울 암, 한국, 4세, 레이팅64, 승률 33.3%, 복승률 33.3%)

지난해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경기도지사배'(GⅢ)에서 우승해 4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월 1800m 경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4월 'GC(남아공) 트로피' 특별경주에서는 3위로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 작년 8월부터 이어진 유승완 기수와와의 호흡이 좋다.

▶클리어검(암, 한국, 6세, 레이팅93, 승률 24%, 복승률 44%)

국내산마 베테랑 암말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GⅢ), 올해 1월 1등급 경주, '동아일보배'(L)까지 라운더스퍼트와 이어 3연승 2위를 기록했다. 라운더스퍼트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뒤지고 있지만 대상경주에 특별히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독섬배'처럼 1400m에서 성적이 특히 좋았다. 중거리에서는 후반 추이에 강했던 말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참좋은친구(서울, 3세, 레이팅62, 승률 37.5%, 복승률 50.0%)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츰 두각을 나타냈다. 3세를 맞은 올해 첫 대상경주 출전이었던 '루나Stakes'(L)에서 간발의 코차 승부로 골든파워에 이어 2위를 했다. '코리안오크스'(GⅡ)에서도 막판 뒷심 부족으로 3위를 기록했다. 두 번의 부산경남 원정에서는 조금씩 골든파워에 밀렸지만 이번 서울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주는 어떻게 기대가 된다.

▶라운더스퍼트(서울, 3세, 레이팅64, 승률 42.9%, 복승률 71.4%)

라운더스퍼트 등 암말 강자를 배출한 머스킷맨의 자마다. 라이벌인 참좋은친구와도 부마가 같다. 유력한 삼관마 후보 골든파워의 독주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오크스'(GⅡ)에서는 목차의 명승부 끝에 2위를 했다. 2000m 첫 도전으로 초반 선행으로 나서 결승까지 얼마나 주력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5일 '독섬배'(GⅡ)

▶라운더스퍼트(서울, 암, 한국, 5세, 승률 58.8%, 복승률 64.7%)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GⅢ)부터 올해 '세계일보배'(L), '동아일보배'(L)까지 대상경주 3연승을 기록한 경주마로 이번 경주도 우승후보 1순위다. 3세 이상 암말 선발 시리즈인 '퀸즈투어'의 첫 관문인 '동아일보배'를 제패하고 두 번째 관문인 이번 '독섬배'에 나섰다. 1400m 출전 경험이 많다.

말사진 공모전 '세기를 박차다' 개최



마사회는 말사진 공모전 '세기를 박차다'(사진)를 개최한다. 한국 경마 100년을 맞은 한국마사회의 대국민 참여 이벤트다. 말을 소재로 국내에서 촬영한 디지털 사진작품을 공모한다. 대상(상금 400만 원)을 포함해 36점에 총상금 1850만 원을 수여한다. 디지털 카메라 외에 스마트폰 사진도 10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10월1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다.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작품들은 12월 서울경마공원 말박물관에서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포상금 가산 지급



마사회는 10일부터 7월3일까지 불법경마 집중단속(사진)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는 1명당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업장 외부 신고는 20% 가산(당일 단속금액 1억 원 미만 구간) 지급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협업한다. 불법도박 합동단속, 예방홍보 협업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행산업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정보 교류에 힘쓴다.

마사회, 3~5일 'K-농산어촌 한마당' 참가

한국마사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되는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가한다. 말산업 홍보대사로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제2전시관 농산어촌 체험관 내에 조성한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포니 관람과 승마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실내승마체험기를 운영한다. 또한 한국경마 100년 기념영상 등 다양한 말산업 소개영상과 말 관련 물품을 전시한다. 말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방문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와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했다.



5월29일 YTN배에서 우승한 위너스맨과 서승운 기수.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위너스맨, '스테이더 시리즈' 삼관왕 도전

헤럴드경제배 이어 YTN배 우승 26일 부산광역시장배 성적 주목

장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스테이더 시리즈' 삼관왕 탄생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의 위너스맨(수, 한국, 4세, 이경희마주, 최기홍 조교사)은 5월29일 서울경마공원 8경주로 열린 스테이더 시리즈 두 번째 경주 'YTN배'에서 우승했다. 2위는 행복왕자, 3위는 금아미스틱이 차지했다. 위너스맨은 스테이더 시리즈의 첫 경주인 '헤럴드경제배'에 이어 두 번째 경주까지 휩쓸었다. 26일 열리는 세 번째 경주 '부산광역시장배'(GⅡ)에서도 우승하면 2018

년 청담도끼 이후 4년 만에 스테이더 시리즈 삼관왕이 탄생하게 된다. 2년 만에 열린 '제21회 YTN배'는 2000m 장거리 경주다. 산지나 성별 관계없이 3세 이상의 경주마들이 참가해 총 4억5000만 원의 상금을 두고 경쟁을 했다. 위너스맨 외에 지난해 '그랑프리'(GⅠ) 챔피언인 행복왕자, 데뷔 이후 8전 5승을 달리는 킴오브더매치 등 11마리가 출전했다. 초반 터치스타와 킴오브더매치, 위너스맨이 치고 나오며 부경 말들이 선두를 장악했다. 유력 우승후보였던 행복왕자는 4위로 안쪽에서 따라가며 중반 이후 3위까지 따라잡았다. 마지막 직선주목에서 위너스맨이 뒷심을 발휘하여 1위로 나섰고 행복

왕자가 뒤를 바짝 추격했다. 하지만 위너스맨이 마지막까지 1위를 내주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위너스맨과 호흡을 맞춰 스테이더 시리즈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서승운 기수는 "행복왕자라는 인기스타가 있었지만 오히려 부담 없이 탔던 게 우승 비결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홍 조교사는 "행복왕자가 워낙 결출한 말이라 뒤에 따라 붙을 경우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으나, 오늘 위너스맨이 기량을 100% 발휘해 생각보다 수월하게 우승을 차지했다"고 우승의 영광을 말에게 돌렸다. 이날 'YTN배' 경주에는 2만6000여 명의 관중이 모였고 총매출은 약 46억 원을 기록했다. 배당률은 단승식 5.2배, 복승식과 쌍승식은 각각 3.4배, 8.6배다. 김재범 기자

경륜

경륜, 12일까지 성적으로 하반기 등급심사...'방심·반란' 주의

승급 예정 선수들 방심할 가능성도 등급 소외된 선수 반란도 고려해야

2022년 하반기 등급심사가 머지않았다. 등급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성적을 심사해 7월부터 적용한다. 경륜 등급은 특선급(SS, S1, S2, S3), 우수급(A1, A2, A3), 선발급(B1, B2, B3) 등 3개 등급, 10개 반으로 운영된다. 등급심사에 필요한 평가점 산출방식은 대상기간 평균 경주특점과 임상점에서 위반점을 뺀 점수다. 연 2회 등급을 부여하는데 심사 시 적용되는 급별, 경륜장별 운영규도가 심사마다 다르다. 따라서 선발급에서 우수급, 우수급에서 특선급으로의 승급과 특선급에서 우수급, 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의 강급 커트라인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보통 등급심사 한 달 전부터 선수들의 총력전이 펼쳐진다. 이번 주부터 등급심사까지 2회 차 정도만이 남아 있어 득점관리를 위한 두뇌 싸움과 적극적인 승부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경륜 예상전문가들은 남은 2회차는 승강급을 앞둔 선수들의 득점관리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한 약체의 반



광명스피돔에서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하반기 등급심사까지 2회차 정도의 경주만 남으면서 이 기간 어수선한 레이스 분위기 속에 이번이 속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란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시즌 상반기 특선급 승급 평균득점은 94.660, 우수급 승급은 88.257이다. 반면 우수급 강급은 96.572, 선발급 강급은 89.939로 커트라인이 형성됐다. 이를 고려하면 하반기 승급을 위해서는 우수급은 종합특점 95점 이상, 선발급은 89점 이상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급을 피

하려면 특선급은 97점 이상을, 우수급은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이미 선수들은 자신의 종합특점과 실적 위반점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급이 예정된 선수들의 '방심 패달'을 주의해야 한다. 금요일 혼전, 토요일 안정적 편성, 일요일 혼합 편성 속에서 강자들이 방심하다 등으로 밀리던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5월27일 광명 8경주, 28일 광명 7경주에서 종합특점 95.02인 정현수(26기)는 인기 순위 1위였지만 3착을 했고 같은 날 10경주에서는 종합특점 95.33인 김지광(20기)이 2착을 하며 쌍승 572.6배라는 고배당이 나왔다. 등급 변경에서 소외된 약체의 '반란 패달'도 주의해야 한다. 마음을 비운 이들이 의외의 선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5월 21일 광명 특선급에서 유다훈(25기)은 1착으로 쌍승 853.9배를 터뜨리며 결승 진출했다. 5월22일 광명 선발급에서 약체로 평가된 84.34점의 진익남(9기)은 3착을 하며 삼복승 20.4배, 쌍복승 42.7배, 삼복승 43.7배를 기록했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승급 예정자들이 성급하게 상위 등급을 대비한 전법 변화를 꾀할 경우 현 등급에서 이어온 흐름을 놓치기 쉽다. 이런 선수들이 2, 3착으로 밀리면 높은 배당이 나올 수 있다"며 "반면 이런 강자들의 방심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면서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선수도 있어 이런 선수들로 3착을 받쳐 삼복승, 쌍복승, 삼복승 등에서 배당을 노려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김재범 기자

경륜 제1회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5월28일 광명스피돔에서 2022년도 제1회 경륜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주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륜 고객을 일일 명예심판으로 임명하여 경륜사업 전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격월로 운영한다. 경륜경정 스피드온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 중 5명을 선정해 스피드온 내 경주로, 종합심판실, 방송실 등 일반고객의 출입이 제한된 경주운영 현장을 견학하고 심판판정 과정을 참관했다. 제2회 프로그램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경륜경정 스피드온 앱 또는 경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 취약계층에 보양식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5월27일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을 광명시 소하동, 하안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330명에게 500만 원 가량의 보양음식(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명규 경주사업총괄본부 경륜경정건강전담본부장과 서은경 소하노인종합복지관장이 참석했으며 간단한 전달식 후 지역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 보양음식을 건넸다. 보양음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구입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명규 본부장은 전달식에서 "오늘의 작은 나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